

2012

## 파주북소리 ‘도서관의날’ 전문인 세미나

“권장도서목록을 다시 생각하다”

- 일정 : 2012. 9.19(수) 09:30~13:00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센터 1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경기도대표도서관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 2012 파주북소리 도서관의 날 전문인세미나

---

-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회적 매개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어떤 기준과 방식을 통해 “책”을 수집·보급할 것인가를 출판계 및 도서관 등 관련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기회 마련
- 

## □ 세미나 개요

- 주 제 : “권장도서목록을 다시 생각하다”
- 일 정 : 9월 19일(수) 09:30~13:00
- 장 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센터 1F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권장 도서”에 대한 기준 및 현황, 문제점, 도서관의 사명과 장서개발과의 연계, 권장 목록의 활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
  - 도서관, 출판계, 관련 전문가들간 토론을 통한 대안 제시
- 참 석 자 : 도서관 및 출판계 관계자 200여명

## □ 주요 내용

- 주제 발표
  - 권장목록을 생각하다 / 강창래 (작가, 장서개발전문위원)
  - 공공도서관에서의 권장도서목록 / 박정순(수원영통도서관 관장)
- 지정 토론
  -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 여을환(어린이도서연구회 상임이사)
- 종합 토론

## □ 세미나 일정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부터	까지	분	
09:30	10:00	30	• 참가자 등록
10:00	10:10	10	• 개회사
10:10	11:00	50	• 주제발표 - 권장목록을 생각하다 / 강창래 (작가, 장서개발전문위원) - 공공도서관에서의 권장도서목록 / 박정순(수원영통도서관 관장)
11:00	11:20	20	• 휴 식
11:20	11:40	20	• 지정토론 -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 여을환(어린이도서연구회 상임이사)
11:40	13:00	80	• 주제 : '권장목록을 다시 생각하다' - 토론자 : 강창래 (작가, 장서개발전문위원) 박정순(수원영통도서관 관장)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여을환(어린이도서연구회 상임이사)

## □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강창래

- 작가, 번역가, 편집자, 느티나무도서관 장서개발전문위원
- 저서 :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이어령의 유쾌한 창조>, <좋은 책을 고르는 기술> 등.



### 박정순

- 2005년 11월~2010년 12월 북수원도서관 수서정리팀장
- 2010년 12월~2011년 6월 선경도서관 사서팀장
- 2011년 7월 ~ 수원영통도서관 관장



###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 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 발행인
- 월간 <학교도서관저널> 발행인



### 여을환

- 2006년 3월~2010년 7월 천등거인 출판사 편집위원
- 2007년 2월~2011년 1월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이사
- 2012년 ~ 느티나무도서관 장서개발위원

| 주제 발표 |

## 권장목록을 생각하다

강창래 | 작가, 장서개발전문위원

## 권장도서목록을 생각하다

이 글의 내용은 오래 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지만, 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다. 세미나 발제를 위해 비교적 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로 묻고 답하고, 반대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썼다. 그러나 책을 쓸 때처럼 철저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최대한 챙겨보는 것까지 하지 못했다. 그러려면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족한 점을 감안하고 읽어 봐 주기 바란다. 세미나에서는 이 글보다 좀더 정리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서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해온 이 사회의 ‘권장도서목록’ 작업이 독서가들을 키워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그러나 그런 증거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 혹시 필자가 모르는 효과나 사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배우고 싶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 권장도서목록이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필자는 권장도서목록이 잘 만들어지면 잘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도서관에 들어와 사서에게 묻는다. 지금 이런 종류의 내용을 알고 싶는데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마침 사서의 전문 분야는 아니다. 그렇지만 분야별로, 주제별로, 상황별로 잘 정리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 권장도서목록이 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상황을 평소에 쓰는 일상어로 설명해서 입력하면 적당하게 조합된 도서목록이 제시된다.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권장도서목록이 제 기능을 하고, 신간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반영하려면 책자나 인쇄물 형태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검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그렇게 쓸 모 있는 권장도서목록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자. 그래서 사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

다고 생각해 보자.

“저 컴퓨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내용의 키워드를 잘 골라 검색하면 그 내용에 적당한 책의 목록이 나타날 겁니다. 세부항목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책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당장 필요한 책을 골라보세요.”

“아, 아주 편리한 목록이군요. 그와 관련된 인쇄물은 없나요? 아무래도 아직은 인쇄물이 익숙해서.”

“예, 권장도서목록은 더 이상 인쇄물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이 출간되고 있어서 늘 업데이트해야 하거든요. 요즘은 일 년에 4만 종이 넘는 신간이 쏟아지고 있으니 하루에만도 100권 이상이 나온다고 봐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저 권장도서목록이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고요, 석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니 인쇄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금방 쓸모없는 책이 되어버리니까요. 게다가 항목별로 상호참조되고, 키워드별로 따로 검색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검색해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책들의 목록이 그때그때 조합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일 년째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책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신간에 대한 정보는 도서관보다 인터넷 서점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인터넷서점에는 있지만 도서관에는 없는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책은 희망도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예, 대개 도서관에서는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요즘은 희망도서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예산 문제죠. 대개는.”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만들어진 권장도서목록이라면 책을 찾는 사람에게 대단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일 년 동안이나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어요?”

“예, 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신간들이 워낙 많으니 업데이트 비용도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서관 예산이 깎이고 보니 도무지 업데이트할 엄두를 못 내겠군요.”

“그렇다면 이 권장도서목록에는 일 년 치의 신간 정보가 반영되지 못했군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드나요? 별일이 아닐 것 같은데...”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간 종수가 십년 전쯤보다 대략 두 배는 늘어났어요. 1994년에는 2만 종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 종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야 할 책의 숫자도 많아졌어요. 아니 많아졌다

기보다는 검토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다고 봐야 해요.”

“잠깐만요. 1990년대에 일 년에 한 해에 2만 종정도가 출간되었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평균해서 3만 종으로 잡고, 20년으로 계산해도 그 동안 출간된 종수가 대략 60만 종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 도서관의 장서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10만 종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출간된 책의 15% 정도만 도서관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85% 정도의 책은 없다는 이야기이니까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골라서’ 갖추었다면 고르는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겠어요.”

“..... 아뇨 꼭 다 검토해서 골랐다고 볼 수는 없죠. 무슨 수로 60만 권을 다 보고 검토했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튼 일단 85%는 검토받기도 전에 아웃된 거군요. 그런데 공평하게 검토된 것도 아니라면 여기 있는 15%는 정말 운이 좋은 책들이군요. 선택되지 못한 것들은 제대로 검토도 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은 셈이고요. 그 나머지 85%에는 좋은 책이 없을까요?”

“글쎄요. 좋은 책도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밖에 그러니까 서점이나 헌책방에서도 좋은 책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봐야겠군요. 아무튼 선생님 말씀은, 도서관에 있는 대략 10만 권에 대한 내용이 이 권장도서목록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그것도 그런 건 아니고요. 권장도서목록에 있는 것은 잘 해야 이삼천 종 정도 일 겁니다. 그 종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군요.”

“예? 그러면 겨우 2~3%밖에 안되는군요. 그것도 많이 잡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군요.”

“그래도 좋은 책들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같은 것이 궁금하군요. 10만 종을 다 검토해서 ‘좋은 책’ 만 골라서 권장도서목록을 만들었나요?”

“좋은 책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10만 종을 다 검토해서 골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출간된 60만 종을 다 보고 검토해서 10만 종을 골랐던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10만 종을 누가 다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많은 책을 모두 다 검토해서 의논하고 고른다고 해야 한다면 너무나 엄청난 작업인 데다가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죠. 물론 4대강 예산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일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정권에서 도서관 예산에 그렇게 많이 들리려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으니, 아마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권장도서목록에 없는 97%인, 나머지 9만 7천 권에도 좋은 책이 많겠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우리 도서관에는 좋은 책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굳이 이삼천 권만 권장도서목록에 올린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나머지인 9만 7천 권 안에서 다시 고른다고 해도 적어도 이 목록 안에 있는 책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리고 이 권장도서목록은 물론 좋은 의도로 골라진 것이고, 그 목록에 있는 책들 역시 좋은 책이겠지만 그 목록에만 의존할 경우 나머지 9만 7천 권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테고, 그것은 97%의 책 사이에 견고한 벽이, 또는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해도 낮은 벽이라도 쳐 버린 결과가 될 텐데요.”

“그런 의미도 좀 있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해야 하는 거죠.”

### 도서관의 천사를 만날 즐거움을 빼앗는 권장도서목록

“제가 듣기에는 도서관에 천사가 산다던데요. 권장도서목록은 도서관의 천사의 할 일을 없애는 역할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천사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누구든 아무리 정보가 많은 사람이라도 10만 권 이상을 가진 도서관 장서만큼이야 되겠습니까. 장서 수가 더 많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대충의 정보를 가지고 책을 찾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서분류 체계에 의존해서 서가를 뒤지면서 이책 저책 꺼내보고 있노라면 도서관의 천사가 책을 골라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찾던 책보다 더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은 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보충해서 꼭 더 읽어보고 싶은 책도 발견되고, 찾던 책을 읽은 뒤에 꼭 읽고 싶은 책도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리스 고대 철학에 대해서 자료를 뒤질 때 그랬죠. 그냥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스 역사로 검색해서 그 책들이 있는 서가에 가서 책들을 찾았어요. 이 경우는 서양철학과 서양고대사 책들이 잘 분류되어 있는 서가였어요. 그 서가에서 제가 몰랐던 보물 같은 책들을 여러 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권장도서목록을 가지고 서가에서 책을 찾아 뽑아들고 곧바로 돌아서면 도서관의 천사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도서관의 매우 중요한 기능 하나를 권장도서목록이 해친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지 않으려면 권장도서목록은 도서관의 천사가 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전문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



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도가 안 된다면 도서관에서는 기본 검색만으로 이쪽 저쪽 서가를 뒤지며 다니면서 좋은 책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도서관이 자신의 장서를 다 보여주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도 좀 있긴 하군요. 그래도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독서 초보자가 있다고 쳐요. 그런 사람이라면 10만 중 가운데 보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장도서목록을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읽을 만한 책을 고르려고들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들긴 하겠군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서초보자일수록 더 도서관의 서가에서 이 책 저 책들을 꺼내서 뒤져보면서 책을 찾는 것이 책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책을 고르는 눈을 키우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저는 누구든 자기에게 좋은 책을 고르려면 도서관에서 서가를 뒤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권장도서목록이라는 것은 만든 사람이나 집단의 성향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좀 편향될 가능성도 높을 테고요. 그리고 권장도서목록은 단힌 목록이어서 그 속에 간헐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그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일지 잘 안 떠오르는데요.”

“그런 점이 있겠지요. 아무리 그 목록을 만든 분들의 눈에 우연히 띤 책이라고 하더라도 추천자의 성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권장도서목록을 만든 집단이나 어떤 책을 추천한 분이 누구인지, 그 분은 그 책을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좋겠군요. 그래야 왜 좋다는 것인지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테고, 그 이유에 동의가 안 되면 그 목록을 무시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런데 집단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만,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 뿐 아니라 돈도 무척이나 많이 드는 작업이라 대개는 목록 정도이고, 책 설명이나 추천 이유는 아주 짤막하게 들어가죠.”

“저도 그런 목록을 본 적이 있긴 한데, 왜 그 책이 추천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지, 누가 추천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를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록을 아예 참고하지 않습니다. 추천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 더욱더 추천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가끔 있던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그냥 서가와 서가 사이에 사는 도서관의 천사가 찾아주는 좋은 책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권장도서목록은 독서교육에 필요악인가?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책을 비교적 많이 보셔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책을 읽으려 하고, 아이들 독서지도를 하고 싶은 부모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아니, 자기 자녀가 책을 읽기를 바라는 부모가 그런 목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인가요? 서가 사이를 누비며 책 냄새도 맡고, 마음대로 고르는 즐거움을 포기하고요? 선생님도 그런 목록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독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저는 어린이에게라면 더욱더 권장도서목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의 아이들이라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합니다. 120살까지 산답니다. 그러니 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 책을 읽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분위기나 엄청나게 쏟아지는 출판물을 감안해 보면 정말로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타율적인 독서를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면서 책을 싫어하게 만들 가능성도 큰데,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그것이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예, 2008년과 2009년에 독서량이 증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것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조사 사례에서 2008년의 경우 51%가 ‘책이 재미 있거나 좋아서’의 범주에 들어가더군요. 학교와 관련된 이유가 25% 정도이고요. 도서관이 이유인 경우가 대략 7%, 그리고 기타 등등이었습니다(국가통계포털, 참조)”

“그렇지만 아이들을 그냥 두면 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많아서 책을 보지 않으니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나서서 책을 가져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책과 가까워질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저는 알 수가 없군요. 책을 좋아해야 하고, 책을 즐기는 것을 배워야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계속 볼 텐데요. 더욱이 앞에서 본 독서량 증가 이유 통계를 보면 그렇게 해서 책을 더 읽게 되었다는 경우는 아주 적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책을 권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20년 넘게 독서운동을 벌였지만,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독서교육 광풍이 불고 있다고 표현될 정도입니다만, 그런 ‘교육’이 끝난 뒤에도 독서량이 늘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키고 있다는 뉴스만 볼 뿐이고. 해마다 어른들의 독서량은 줄

어 들고 있고요. 올해는 책 판매량 자체가 거의 반으로 푹 떨어져 버렸다고들 아우성이던데… 그리고 서점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대형 도매상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거나 닫을 지경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지 출판물의 생산이나 유통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독서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책으로만 독서가 집중된 결과인 거죠.

독서운동의 효과가 책을 읽지 않게 만든 점도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1990년대부터 독서운동은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촉발되었고, 한국에는 몇 개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역사 이래 최고로 붐을 이루지 않았나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십대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독서운동의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으니, 그동안의 독서평균량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올라야 그 독서운동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 20~59까지의 인구 수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쯤 되더군요. 만일 20년 동안의 독서교육 효과가 좋았다면 1990년대부터 독서교육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 때문에 독서량의 전체 평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할 텐데,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표는 그 운동의 효과가 마이너스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역시 ‘타율적인 독서’란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권장도서목록도 효과 있는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거죠. 특히 청소년도서나 어린이도서 쪽을 보면 거의 십년이 넘게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학습서를 빼면 그렇습니다. 권장도서목록의 힘 이죠. 여전히 아이들이 직접 책을 고르지 않고 있고, 부모들 역시 그 목록을 보고 계속 같은 책을 사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그 권장도서목록에 있는 책을 읽어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강의하면서 《마틸다》와 《삐삐롱스타킹》 이야기를 했어요. 《마틸다》 맨 뒤에 부모를 가볍게 버리는 아이 이야기나 《삐삐롱스타킹》 맨 앞에는 양치질해라, 이제 잠자라, 그러는 부모가 없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아느냐고요. 그랬더니 몇 사람은 집에 그 책을 사줬는데, 가서 치워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반응은 그만큼 동화나 문학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록이 독서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러다 보니 어린이, 청소년 책도 수없이 나오고 있지만 신진대사가 되질 않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단행본에서는 생각도 못할 정도지요. 그 결과만 보더라도 현재 독서초보자를 위한 권장도서목록의 역기능은 심각해 보입니다. 같은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가 된다는 것이 꼭 ‘좋은 책’ 이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아무 책이 아니라 좋은 책을 가까이하는 것이 왜 아무 도움이 안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권장도서목록이 그런 역할을 조금은

할 텐데요.”

“글쎄요, 저는 그것 역시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은 억압으로 작용하고, 그 억압은 책을 싫어하게 만드는 쪽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기라는 것이 평가를 위한 강제 학습이라는 이미지까지 덧붙여지면서 아이들이 선택할 자유가 생기기만 있다면 곧바로 책을 버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20대, 그러니까 독서교육 광풍이 불기 시작한 90년대에 자란 아이들 가운데 젊은 독서가라고 불려도 좋을 만한 젊은 친구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면 늘 물어봅니다. 친구들은 어떠냐고요. 그러면 다들 웃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사람들은 희귀동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들 책을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책 이야기라면 무조건 싫어한다고 해요. 그건 제 경험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받은 독서교육이 어처구니없다고들 말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책을 좋아하게 된 것은 원론적으로 다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더군요. 부모님이 책을 좋아한다거나, 늘 읽는다거나, 서점이나 도서관에 함께 놀러 가면 마음대로 아무 책이나 고르도록 해 준다거나, 책을 봐도 좋고 보지 않아도 좋은 자유로운 분위기라거나 그런 경우들이죠.”

“그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도 모르지요. 물론 저는 제가 모르는 사실을 듣고 싶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적어도 희귀동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군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른’에 편입된 다음에도 책을 읽는 평균권수가 더 줄어들었다면 그 아이들이 책을 더 읽지 않는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 이전의 평균조차 깎아먹었으니까요. 그것은 무슨 이론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그 독서운동 방식은 어쨌든 실패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숫자로 보면 그렇겠군요.”

“또 저는 권장도서목록이 출판문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운 좋게 눈에 띄어서 권장도서목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슨 토론을 통해 공평하게 걸러내는 것도 아닌 데다가 자세한 소개도 필요 없고, 추천자의 자질이나 성향도 표시되지 않으니까 결국 눈에 띄고 그럴 듯하면 된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책들이 그런 책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자본이 좀더 많아 좀더 자주 크게 광고할 수 있거나, 문화권력을 지원해주거나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출판사의 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책들이 주로 권장도서목록에 들어간다면 좋은 책이라는 것이 자본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또 문화 권력을 쥔 사람들이나 집단의 성향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의 소설이 시장에서 몰락한 결과와 어린이 책들의 신진대사가 아주 느린 이유가 그것이라고 봅니다만. 만

일 그런 애매한 의미의 권장도서목록이 없다면, 결국 도서관에 가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거나 대형서점에서 찾아 읽게 될 테고, 그러면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독서가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독서량은 저절로 많아질 것이고, 출판사는 독자들만 믿고 출판할 수도 있게 될 텐데 말입니다. 물론 자본의 힘이 왜곡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권장도서목록으로 그런 자본의 왜곡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역시 왜곡의 중요한 진원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독서교육은 어떤 책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장도서목록이라도 있으면 상호참조하면서 어떤 책을 읽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대개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사람들은 독서가의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잘 먹는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먹지는 않는다고 해도 맛있게 먹는 부모를 보고 자라고, 가끔씩 먹어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먹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억지로 강요한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먹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말하자면 부모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접하지도 못했던 서양인들이 김치를 좋아하기 힘든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독서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도 역시 책 읽기를 강요하거나 타율적인 방식으로 시작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확률이 높죠. 더욱이 아이들이 자신이 직접 재미있는 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재미있는 책을 ‘줘어줄 때’ 그것이 좋기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또는 아이들이 닳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군가가 ‘행복하게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경우에도 강요하거나 타율적인 방식으로는 좋은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결론, 점점 저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결론으로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증명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의 독서교육이라면 최고의 목표가 책을 좋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렵다면(누구나 다 비슷한 발달 단계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성향도 같을 수가 없으므로) 적어도 책을 싫어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좋아하게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테고, 그곳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도 독서가 행복하고 즐

거운 경험이라는 기억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도서관이나 서점에 억지로 데려다놓고 자신은 책읽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도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기를 바라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최고의 독서교육이란 어른들이 행복한 독서경험을 하는 것이 되는 셈이지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고서는 독서 운동이 대단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스스로 책을 즐겁게 읽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독서가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부터 책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히들 독후감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의 방식으로는 진심에서 우러난 독후감을 쓰게 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고른 재미있는 책을 읽고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말이 가슴에 꽂 차서 터져나오는 독후감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책을 읽었다면 누구에게든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분위기나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타율적인 독서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의심스럽군요. 독후감은 누군가에 의해 요구될 때 이미 그 가치의 반은 상실한 것이니까요. 쓰지 말라고 해도 쓰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발적인 독서라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불편한 토론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죠.”

#### 메타북이 권장도서목록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시 권장도서목록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서 가능하면 그런 책을 안기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생각 자체에 반대하는 건가요?”

“좋은 책이 있다는 건 나쁜 책도 있다는 뜻인데요, 물론 거칠게 말해서 좋은 책과 나쁜 책이라는 게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좋은 책이고 어떤 것이 나쁜 책인지 누군가가 규정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나쁜 책이라고 규정된 것들을 아이들이 읽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인지, 그

것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내가 보기에 나쁜 책이라면 누구에게나 나쁘다고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독선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애소설이나 판타지소설, 무협지 같은 것은 나쁜 부류에 넣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권장도서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그 책들에게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연애소설은 연애 당사자에게 감정이입됨으로써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판타지소설은 현재의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면이 있고, 무협지는 주인공이 대개 고난을 겪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오늘날 텔레비전의 통속 드라마에서 쓰이는 아주 일반적인 요소들입니다. 말하자면 기성세대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받고 즐기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그 드라마들을 어른들은 좋아하면서 보는데, 어린 시절에 미리 좀 보고 졸업하면 안 되나요? 사실 그런 드라마에는 나쁜 요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즐기느냐에 따라 ‘나쁘고 좋고’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김두식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서 말한 ‘지랄총량의 법칙’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몸에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지나친 허세도 부리고,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해서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실패하는 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찌면 나쁜 책 읽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간접경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미리 배우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실패한 경험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배우듯이 분별력 있고 고상한 독서 역시 광범위하고 게걸스럽고 무차별적인 독서라는 토양에 바탕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사실은 어른들에게도 좀 그렇습니다만) 실패의 경험이야말로 성장기에 겪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나쁜 책을 아예 거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성장 과정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나쁜 책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좋을지, 나쁠지를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잘 아는가? 저는 그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전문가가 ‘좋다고 하는 책’들에 대해 어떤 검증과정을 거치거나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놓은 그 목록이 과연 누구에게나 좋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약의 경우에도 이미, 비타민 과용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비타민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권장도서목록에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책이 누구에게 가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재미없어서 읽어내기 힘들 수도 있고, 거꾸로 인 상황도 있을 겁니다. 결국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독서를 하는 사람의 몫이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 알아봐야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것을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진통제처럼 누구에게나 듣는 알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권장도서목록을 만든다면 아주 전문적인 냄새가 날 만큼 자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제대로 된 권장도서목록이란 것이 가능한지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만들어야 한다면 서지학, 철학, 역사가 어우러진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 나름대로 공부해야 할 책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읽을 만한 책을 찾기 위해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군요.”

“당연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세상이 그렇게나 넓고 깊은데, 그 세상에 대한 공부 없이 어떻게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여행서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행을 가기 위해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그 여행이 더 즐겁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유흥준의 《문화유산답사기》와 같은 책에 여전히 열광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넓고 깊은 정신세계인 책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허술한 안내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런 정도의 본격적인 안내서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도서관의 분류 체계만 조금 이해하고 책을 고르면 도서관의 천사가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서가에서 무작위로 꺼내서 보다보면 자신에게 착 달라붙는, 잘 읽히는 책이 있을 텐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책일 확률이 가장 높으니깐요. 그렇게 독서를 하다 보면 좀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 텐데 그때 메타북을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메타북은 아주 진지하게 쓰여진 수준 높은 권장도서목록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의 권장도서목록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닫힌 체계라고 보면, 메타북은 열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닫힌 체계나 열린 체계란 무슨 뜻인가요?”

“지금의 권장도서목록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세상의 책 ‘일부’ 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면 잘 만들어진 것일수록 독서하는 사람을 그 목록 속에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책읽는 시간이라는 것은 기회비용과 비슷한 것이니까요. 어떤 책을 읽으면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록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른 목록이나 다른 세계로 나가기 어려운 의미가 있죠. 그러나 메타북은 구



체적인 목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책을 찾아야 하는지를 말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독자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독서를 통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독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닫힌 세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세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나가는 방식인 거죠.”

“메타북이라는 게 뭔지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말 그대로 책에 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역사책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피터 왓슨의 《생각의 역사》(2권), 로버트 단턴의 《고양이 대학살》, 페리 노들먼의 《어린이문학의 즐거움》(2권) 같은 것이 있겠군요. 좋은 메타북은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죠.”

“대개 좀 어렵고 두꺼운 책들이군요.”

“예, 제가 그랬잖습니까, 몇십, 몇백 만 권이라는 책의 세계에 대한 여행안내서가 어떻게 얇고 간단한 설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직 어렵다면 서가를 헤매면서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좋은 독서 멘토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강의를 듣거나 도움을 받는 것도 더없이 좋은 방법이겠지요. 앞으로 사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어도 독서운동만큼은 편법이나 당장 성과가 드러나 보이는 타율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발성 없이는 절대로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타율적인 것은 자율적인 상황으로 전환될 때 ‘하지 않을 자유’에 의해 맨 먼저 추방되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독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자마자 맨 먼저 독서를 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가 느리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적어도 독서 문제에 관한 한 느릴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방법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독서가라면 책 속에서 길을 잃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책을 즐기는 과정일 테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메타북이나 독서 멘토의 도움을 받으며 좀 더 깊이 있는 책읽기의 즐거움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행복한 일이라는,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때 독서운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독서회가 불타는 금요일에 가장 가보고 싶은 모임이 되고, 불편한 토론을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만 가능하리라는 겁니다.”

| 주제 발표 |

## 공공도서관에서의 권장도서목록

박정순 | 수원영통도서관 관장

# 공공도서관에서의 권장도서목록

## I. 들어가면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 발표에 따르면 ‘피사 2009’ 통계를 심층 분석한 ‘피사 2009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의 읽기능력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한국 학생들이 9년 전보다 7.2%나 늘어나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한 반면,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9년 전과 견주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한 학생 가운데 우수한 성취도를 거둔 학생들의 비율도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또한 ‘깊은 독서’를 하는 학생들의 비율에서도 한국은 35%로 OECD 평균(45%)보다 낮았다. 더욱이 ‘깊은 독서’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 사회경제적으로 상위계층에 속한 학생들의 비율이 32%를 나타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sup>1)</sup>

이렇게 독서에서도 계층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풍부한 지식과 정보, 창조적인 활용 능력이 국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창조적으로 재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독서이다. 도서관은 좋은 정보와 도서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모든 계층에 혜택을 주어야 하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또한 사서는 좋은 도서에 대한 정보제공 및 독서교육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출판물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서가 개인의 상황에 적합하면서 좋은 책의 기준도 충족시키는 도서들을 선정하는 작업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도서를 선정하는 사서가 구입할 모든 책을 좋은 책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은 실제 업무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 한 일로 개인이 이만한 양의 책을 모두 접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전문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는 작업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양질의 도서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도서를 평가한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 배포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은 도서선택을 위한 선정도구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sup>2)</sup>

1) '학업성취도 양극화' 9년새 더 커졌다, 한겨레뉴스 2011 .4. 10

여기서는 선행 연구에서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권장도서의 의의

국어사전에서 권장을 ‘권하여 하도록 하다, 권하여 장려함’ 도서를 ‘생각이나 사실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나타낸 종이를 겹쳐서 한데 꿰맨 물건’으로 설명하고 있어, 권장도서란 권하여 장려하는 책들을 말할 수 있다.

권장도서목록은 필독도서목록에 비해 중요도가 보편적으로 인정된 책 중에서 읽기가 권해지는 책의 목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필독도서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으며 영역도 다양하고 내용의 깊이도 더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 권장도서목록은 문화관광부, 각 교육기관, 각종 도서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각 독서교육단체에서 발행되고 있으나 선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상태이다<sup>3)</sup>

### 2. 권장도서의 필요성 및 문제점

정서함양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어 창의적 능력을 길러내는 독서에 있어 필독도서나 권장도서의 목록의 필요성은 첫째 쏟아져 나오는 독서 자료를 모두 읽을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 어떤 책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망설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 버리는 난독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독서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셋째 올바른 독서습관과 평생의 독서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 습득으로 독서생활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며, 넷째 우수한 책을 제공함으로써 독서의 불균형 및 편향적인 독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섯째 학습방법을 학습하는 능력을 습득시켜 과제해결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여섯째 정서를 순화하고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인격형성에 필요한 독서재료를 계통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의의에서 필요하다<sup>4)</sup>

하지만 권장도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많은 책 중에서 읽을 만한 책을 추리는 행위는 목록에 없는 책이 배제되어 독자의 선택권이 위축되거나 획일화된 책임기를

2) 이연옥,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권2호, 2006

3)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독서교육사전, 2006. p.23

4) 변우열, 독서교육의 이해, 조은글터, 2009. p.255~256

부추길 소지가 없지 않으며<sup>5)</sup> 권장도서는 ‘권’ 하는 도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및 학부모의 기대 면에서 볼 때 강권하는 면이 있어 자칫 권장도서에 대한 의무감으로 변질 될 수 있고 결국 독서습관 향상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우려<sup>6)</sup>와 한 기관이 10년간 발행한 권장도서 목록을 살펴 본 후 명확한 선정과 분류 기준이 없으며, 특정 작가나 출판사 및 주제의 중복성을 지적하고 도서관 사서들은 목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며 권장도서 목록이 필독서로 둔갑하는 것에 대한 우려<sup>7)</sup>를 나타내기도 한다.

### 3. 권장도서목록 현황

선행연구로 살펴 본 권장도서목록은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교육계, 출판계, 판매 및 대여기관, 정부관련기관, 민간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분(김시내, 2003)하거나 생산하는 기관을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정부기관, 도서관계·출판계·독서관련 시민단체나 사회기관, 신문·방송 등의 언론기관, 출판사·서점·독서관련 영리단체와 같은 상업적 기관 생산 및 기타 권장도서목록(이연옥, 2006)등으로 구분하는데 공통적으로 연구된 권장도서목록은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 교양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의 ‘청소년 권장도서목록’,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 중앙일보 ‘좋은 책 100선’ 이었다.

권장도서목록 생산기관 중에서 선행연구와 기관 간 상호인용 빈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기관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문화관광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인출판회의, 책따세, 한국도서관협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 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학도넷, 행복한아침독서운동,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한우리독서문화운동 등<sup>8)</sup> 순으로 연구되었다.

## Ⅲ. 권장도서목록 읽어보기

다양한 권장도서목록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한출

5) 최성일, 어린이 추천도서 어떻게 볼 것인가, 창비어린이, 2003 가을호, p.194.

6) 이은영, 권장도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 및 독서습관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14

7) 김은하, 권장도서목록을 버려야 하는 이유, 창비어린이, 2005 가을호. p.60~61

8) 안인자, 국내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개발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권4호(2009.12) pp.34

관물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도서연구회, 책따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개 기관의 권장도서목록 현황과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권장도서목록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기관의 2008년~2011년까지 발행된 권장도서목록에 수록 도서 수는 총 5,400여종이며, 1개 기관에서는 창간호부터 누적된 목록이 발간되고 있다. 이중 2개 기관 이상 중복된 도서는 20%에 해당하는 1,100여종이고, 3개 기관 이상 중복도서는 약 60종, 4개 기관 중복도서는 7종으로 나타났다.

<표 1> 권장도서목록 도서수(2008~2011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계	5,487	1,134	1,155	1,075	2,12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028	305	278	254	191
대한출판문화협회	476	120	119	120	117
문화체육관광부	1,597	368	414	405	410
어린이도서연구회	1,109				1,109
책/따/세	237	61	64	56	56
간행물윤리위원회 (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040	280	280	240	240

주로 어린이·청소년도서가 대부분이며 6개 기관 권장도서목록의 내용에 연령 및 학년에 대한 정보 제공 4개관, 내용 요약이나 서평 정보를 4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도서에 대한 선정 기준은 3개 기관에서만 제시되고 있다.

<표 2> 계층별 권장도서목록

구 분	계	어린이	청소년	일 반
계	5,487	1,776	2,043	1,66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028	792	236	
대한출판문화협회	476		476	
문화체육관광부	1,597		388	1,209
어린이도서연구회	1,109	936	146	27
책/따/세	237		237	
간행물윤리위원회 (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040	48	560	432

2011년에는 2,123종이 선정되었으며, 수록된 목록 중 2011년 발행된 도서는 846권으로 40%, 2010년 418권으로 20%, 2009년 137권 6%, 2008년 173권 8%, 2007년 이전에 발행된 도서도 26% 순으로 나타나 시민단체 1개관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에서는 근간 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표 3>2011년 권장도서목록 도서의 발행년도 현황

구 분	계	2007이전	2008	2009	2010	2011
계	2123	549	173	137	418	84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91				61	130
대한출판문화협회	117				17	100
문화체육관광부	410	1			149	260
어린이도서연구회	1109	548	173	136	136	116
책/따/세	56			1	12	43
간행물윤리위원회 (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40				43	197

#### IV. 공공도서관의 권장도서목록 활용

경기도 31개 시·군 175개 공공도서관 중 10개시의 12개도서관을 임의 선정하여 권장도서 활용 및 2011년도 권장도서 대출현황과 각 도서관의 최고 대출 기록을 살펴보았다

##### 1. 선정도구로서의 활용

지난 한해 우리나라는 44,036종을 출판하였고, 만화와 학습참고서를 제외하고도 35,444종이며, 이중 아동도서는 9,546종이 출판되었다.

2011년 경기도 공공도서관에서는 175개관이며 연간자료구입비 19,017,976천원으로 1,711,714권의 도서를 구입<sup>9)</sup>하여, 1개관당 평균 도서구입비는 108,674천원이고 9,7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하였다. 이번 권장도서목록 활용 조사대상 도서관

9)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2011. 12월)

12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는 평균 약 203,000천원으로 약 18,000여권을 구입하여 경기도의 평균보다 높은 대도시 지역과 지역의 중앙도서관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도서관의 도서구입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으며, 수시로 구입하거나 년3회 구입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에서 연간 구입하는 도서는 복본으로 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도서의 1/4정도, 지역의 중앙도서관들도 1/2정도 구입하고 있으며, 도서를 수시 및 매월 구입하는 도서관이 1/2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판량과 구입량에 비하여 권장도서목록으로 선정되는 도서는 2,000여종이며, 권장도서목록을 다음 년도에 발간하는 기관도 있었다.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기는 수시나 매월이상이 7개관으로 권장도서목록을 공공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다.

<표 4>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대출현황

	도서구입예산 (천원)	년간증가책수 (권)	구입시기	대출권수	1일평균 대출권수
고양○○	250,000	20,161	년15회	508,610	1,541
과천○○	150,000	14,775	분기별	433,870	1,451
군포○○	300,000	28,644	분기별	698,176	1,956
남양주○○	140,000	16,978	매월	286,339	789
부천○○	300,000	31,552	수시(10일)	47,627	899
성남○○	230,000	17,019	분기별	761,291	2,259
성남△△	230,000	20,766	분기별	725,046	2,151
수원○○	170,000	14,528	매월	613,904	1,860
수원△△	162,000	14,140	매월	561,350	1,743
안성○○	220,000	15,278	매월	284,507	945
용인○○	117,000	10,154	년3회	553,542	1,693
평택○○	175,000	11,858	수시	362,932	1,107
계	2,444,000	215,853		5,837,194	18,394
평균	203,666	17,988		486,433	1,533



## 2. 공공도서관 권장도서목록 발간 현황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12개관 모두 책자, 프린트, 홈페이지 등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5개관에서는 책자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권장도서의 선정위원은 내부 담당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다른 권장도서목록에서 발췌하여 선정하고 있어 도서선정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에서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할 때 도서선택에 대한 주제, 연령별 분류나 키워드, 선정이유, 서평 등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서의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과 도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현재 발간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였다.

<표 5> 공공도서관 권장도서목록 발간 현황

	권장도서목록 발간 현황			권장도서 선정
	책자 및 리후렛	프린트물 형태	웹	
고양○○		○	○	타 기관 목록 발췌
과천○○	○			타 기관 목록 발췌
군포○○			○	내부 선정위원
남양주○○		○		타 기관 목록 발췌
부천○○		○	○	타 기관 목록 발췌
성남○○	○	○	○	타 기관 목록 발췌
성남△△	○	○	○	타 기관 목록 발췌
수원○○	○		○	연령별, 주제별 역할 분담
수원△△	○		○	연령별, 주제별 역할 분담
안성○○		○	○	내부 선정위원
용인○○		○	○	타 기관 목록 발췌
평택○○		○	○	연령별, 주제별 역할 분담

## 3. 공공도서관 대출현황

2011년 권장도서목록 중 3개 기관 이상에서 중복 선정된 도서 9권에 대하여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2011년 대출현황은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 7개관에서

「그래도 나는 누나가 좋아」가 5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었다. 5개 기관에서 중복 선정된 「세상을 살린 10명의 용기있는 과학자들」은 2개 도서관에서 가장 적게 대출된 도서이며, 가장 적게 대출된 도서는 「현대인의 탄생」이다. 이 두 도서는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도서관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도서가 독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선정 기관이나 독서교육 현장에서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조사대상 12개 공공도서관의 2011년 가장 많이 대출된 일반도서는 「식객」 「정령왕」 「비뢰도」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엄마를 부탁해」 「덕혜옹주」 「고구려」 「아프니까 청춘이다」 순으로 나타나 무협지나 판타지, 드라마, 판매부수 등 매스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도서는 「메이플스토리 시리즈」 「내일은 실험왕」 「빈대가족 시리즈」 「살아남기」 시리즈 등 흥미 위주의 지식 도서가 유행처럼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경우 독서습관을 살피고 개인에게 맞는 독서지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의 인적구성으로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V. 권장도서 활용의 개선방안

### 1. 독서교육이 가능한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은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을 어떻게 읽고, 읽게 하여야 하는지 책을 고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이왕이면 좋은 책을 권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간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책의 기준이 책을 읽는 목적, 독서수준, 관심분야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기관의 권장도서와 도서관 이용자들이 읽는 도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는 많은 독서관련프로그램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스스로 읽을 책을 선정하여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자신의 가치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독서력 향상이 도서관의 의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민의 독서력 향상은 정보과학의 힘으로 대체할 수도 없으며, 구호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개인의 독서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759개관이며 1관당 사서수는 4.18명이 고<sup>10)</sup> 2011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175개관의 1관당 사서수는 4.2명, 1일 평균 도

서 대출은 756권<sup>11)</sup>으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이외의 독서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든 형편이다.

권장도서목록 활용에 앞서 지역주민의 독서 습관과 독서 문화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문 인력을 갖춘 공공도서관 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 2. 권장도서의 교육현장 역할

권장도서목록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권장도서가 제대로 선정되어 제 기능을 하고 활용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현재 권장도서목록을 발간하고 있는 기관에서 권장도서에 대한 평가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서관은 독서 자료에 대한 안내와 독서관련프로그램, 독서동아리활동 등 독서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출판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선정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미 발간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하여 교육지도안을 마련하고 독서교육을 실시한 후 권장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직접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다시 목록에 반영하는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평가되어진 권장도서목록의 내용들이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들을 한 곳에 모아 독서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력이 부족한 각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 3. 차별된 권장도서목록 발간

앞의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공공도서관에서는 내부적인 업무 담당자들에 의하여 기존의 권장도서목록을 발췌하여 또 다른 권장도서목록을 만들고 있어, 실질적인 독서교육 보다는 행정적 업무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독서활동들은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영역으로 독서교실, 독서회, 독서치료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서활동에서 다루어진 도서들은 나름대로 좋은 책으로 선정되고, 깊이 있는 독서와 함께 활동들을 통하여 독자의 반응이 나타난 도서들이다. 또한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도서들을 사서나 이용자들이 추천하거나, 고전강독, 전시회 등의 독서활동을 통한 확장된 도서목록들이 축적되어 있다.

10)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10

11)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2011. 12월)

공공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축적된 도서들로 권장도서목록을 발간한다면 좀더 현장의 목소리와 독자들의 반응이 담긴 권장도서들이 될 것이다.

## VI. 나오면서

현대사회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를 갖는 사회이며, 이러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독서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서를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의 독서에 대한 계층적 차이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권장도서에 대한 깊이 있는 독서와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서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며, 도서관 활동에서 축적되어진 권장도서목록은 지역주민의 독서 후 확장된 생각이 담긴 창의적인 목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독서교육사전, 교학사, 2006  
변우열, 독서교육의 이해. 조은글터, 2009  
임영규, 독서자료 선정과 활용, 박이정, 2008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독서교육의 길라잡이, 푸른숲, 2001  
김은하, 우리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살림출판사, 2011  
이연옥,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권 2호, 2006  
안인자, 국내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개발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권 4호, 2009.12  
강영주, 교과와 연계한 권장도서 목록 개발과 내용분석,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김은자, 초등 3,4학년용 권장도서의 특성 분석,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이은영, 권장도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 및 독서습관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지정 토론 |

## 권장(추천)도서가 때로는 아이를 망친다, 하지만!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 권장(추천)도서가 때로는 아이를 망친다, 하지만!

두 발표자는 권장(추천)도서목록이 갖는 긍정성과 부정성, 공공도서관에서의 활용도, 권장도서 선정의 지난함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본 토론자는 이미 ‘책따세’ 대표인 허병두 선생과 추천도서에 대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이 논쟁의 경과를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토론의 결론 도출에 일조하고자 한다.

### 1. ‘추천도서목록’ 이 권력되는 시대 전문사서교사 확보 시급해

얼마 전 출간된 <책따세와 함께 하는 독서교육>이란 책의 뒤표지에는 “추천도서는 독서교육의 나침반”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 올해 초에 논란이 됐던 ‘서울시교육청 추천도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라면 나도 그 말을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을 두고 벌어진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토론을 여러 차례 듣고 나서는 적어도 이 땅에서 추천도서가 ‘해악’ 이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책따세 교사들이 이번에 펴낸 책이나 그들이 선정한 도서는 물론 좋은 책들이다. 다른 어떤 추천도서들보다 객관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사서 확보율 3%가 상징하듯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독서와 학생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진 교사들이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 또한 존경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는 책따세를 역할모델로 삼은 모임들이 점차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책따세의 추천도서만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추천한 도서목록이 점차 ‘권력’의 속성을 띠게 되면서 추천목록의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더 커졌다. 그래서 추천도서가 ‘게으른’ 교사들에게는 ‘실용적 지침’으로 손색이 없을지 몰라도 학생들에게는 이미 작은 ‘폭력’이 되고 있다. 결국 그 추천도서들이 교사사회에서 지지를 받을수록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에서 멀어지는 일까지 벌어질 것이다.

아무리 확실한 내용 검토와 ‘임상실험’을 통해 선정된 목록이라 해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이제 그것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그런 추천도서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교사들에게는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수많은 임상실험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사들부터 추천목록을 가지고 독서이력철이나 독서능

력검정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추천도서는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천도서로 열악한 환경을 적당히 무마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학교도서관을 마련하고 그곳에 다양한 책과 잡지, 일간신문, DVD 등의 영상자료, 인터넷 접속을 위한 컴퓨터 등을 폭넓게 구비해 주어야 한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읽는 사람의 기분, 주변 환경에 따라 책을 읽은 느낌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만나는 이질적인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인차에 맞는 책을 권하면서 토론을 통해 충분한 조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전문사서 교사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에 사서교사를 438명 증원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행정자치부는 어이없게도 전원 삭감해 버렸다. 지난 9월30일에는 교사들이 이에 항의해 교육부 후문에서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그 자리에서 교사들이 결의한 바대로 2006년 사서교사 배치 0명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며 또한 교과교사 및 비교과교사 수준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돼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1인 이상 배치되는 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한기호의 출판전망대' , <한겨레> 2005. 10. 14 )

## 2. '독약본'도 때로는 필요하다

여름방학이면 으레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온갖 추천도서가 발표된다. 이렇게 추천되는 책들은 물론 모두 좋은 책이다. 지난 시절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이런 관행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책들만이라도 학교도서관이 갖추고 학생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추천도서가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말이다. '서울대학교 권장도서'만 놓고 보자. 나이 18세에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듯 하는 '학벌사회'에서 서울대 권장도서는 발표되는 순간 '권력'이 된다.

그 목록이 누구를 위해 작성됐는가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출판사들은 그런 종류의 책 생산에 열을 올리고, 시장에서는 그런 책 위주로 진열하고, 언론에서는 그런 책을 소개하기에 바쁘고, 일선 고등학교나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는 그런 종류의 책

을 사 모으기에 바쁘고, 학생은 의미도 제대로 깨우치지도 못한 채 무작정 그런 책을 읽기에 바쁘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강요된 독서로는 책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기 어렵다. 오히려 어린 시절 어른이나 읽는 '위험한' 책을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책에 빠져버려 결국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 도서관 직원은 이런 책을 '독약본(毒藥本)'이라고 말했다. 읽는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책의 발견이 오히려 커다란 충격이 되고 그리하여 결국 꼬리를 무는 책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초 정년퇴직하신 은사 한 분은 한평생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셨다. 하지만 정작 그 분이 성과를 낸 것은 학교의 CEO인 교장이 되고나서였다. 그는 한 고등학교를 책 읽는 학교로 만드는 데 성공하셨다. 선생님은 여러 장소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게 됐다.

그 강의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접근성'이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투리 시간에 잠시 들러 잡지라도 읽을 수 있는 '쉽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책의 '신선도'다. 학교도서관에는 슈퍼마켓의 두부처럼 아주 신선한 신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학교에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 만한 만화, 판타지, 로맨스소설, 신간잡지 등을 고루 갖춰놓았다. 이런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는 대중독자의 출현을 알린 '별들의 고향'(최인호)을 비롯한 이른바 호스티스 소설들을 고교시절 학교도서관에서 읽은 기억을 떠올렸다.

예나 지금이나 고등학생에게 이런 소설들을 읽으라고 추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70년대 중반에는 가난한 고등학생이 이런 책을 사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이런 책을 꽤 읽었다. 선생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결국 내가 책을 업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선생님은 학교도서관의 책이 신간으로 1만권이 넘어서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이 나오더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1만권이 넘으면 인간 독서능력의 개인차를 수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모든 학교도서관이 하루빨리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사서오경 등 10권 안팎의 책만 읽고서도 지식인 행세를 하던 조선시대가 아니다. 학생들은 인류가 생산한 '모든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해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재배치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우리가 조선시대 마냥 추천된 몇 권의 책을 획일적으로 읽고 암기하고 그걸 평가해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어리석은 발상일 뿐이다.  
(한기호 ‘시론’ , <한국경제> 2005. 8. 23)

### 3. 허병두의 권미우보

“학교를 살리려면 학교도서관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을 살리려다 보니 학교에서만은 안 되겠다. 학교를 살리려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빠르겠다. 그렇다면 학교도서관이 중요함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책따세’ 는 이렇게 학교에서 반걸음 나가서 사회와 연계하여 우리 교육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바꾸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사서 교사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이라면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만 해도 백 명 이상의 사서 교사를 정원 외로 학교 현장에 배치한 지가 벌써 10년에 가깝다. 서울 시내 1,00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1/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학교에 배치되었던 정규 사서 교사는 자신의 학교도서관만이 아니라 학교도서관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또한 바꿔놓을 정도로 선구자적인 고통과 노력을 감내해야 마땅하다. 과연 그러한가? 모든 것이 문헌 정보학과 사서 교사의 책임은 결코 아니지만, ‘전문 사서 교사 배치’ 를 주장한다면 진정한 변화의 주역답게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감동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허병두, <라이브러리&리브로> 7월호)

### 4. 추천도서목록 상업화 유감

추천도서목록은 양면성을 지닌다. 잘 쓰면 책의 세계로 이끄는 근사한 지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서를 멀리하게 만드는 무서운 족쇄다. 그래서 훌륭한 추천도서목록을 만들고 제대로 활용하기란 중요하고도 어렵다.

지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 낭만적이듯 추천도서목록 없이 하는 독서는 확실히 자유롭다. 하지만 이는 그럴 만한 시간과 경제적 형편 등이 충분한 극소수 ‘특권층’ 한테나 가능하다. 수많은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 시대에 과연 무엇을 읽으면 좋은지 훌륭한 추천도서목록을 기웃대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특히 어느 분야든지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다양한 관련서들의 여러 시각을 섬세하게 구별하며 제시하는 추천도서목록은 필수적이다. 다수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추천도서목록은 지성의 세계와 감성의 우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로

서 역할까지 감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추천도서목록은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 추천도서목록은 선정한 책들에 대한 특별한 부각이다. 따라서 이는 곧 다른 책들에 대한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추천도서목록이 강제성과 획일성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까닭이 또한 여기에 있다. 역지로 어떤 책들을 읽으라고 강요하거나,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할 경우 풍요로운 지성과 감성의 성과물인 책들을 소외시키고 획일화시키는 위험을 불러온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추천도서목록이 상업성을 띠면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독서를 낳는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우, 추천도서목록이 강제성과 획일성에서는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상업성은 더 강해지고 있다. 가령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추천도서를 발표하지 않는데도 웬만한 서점이나 출판사의 책 광고에는 ‘교과부 추천도서’ 나 ‘서울시교육청 추천도서’ 라는 문구가 버젓이 붙어 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게 한다는 최소한의 기본 신뢰를 깨뜨린다. 당장은 해당 책들을 많이 팔 수야 있겠지만 출판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태다. 근래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라며 발표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추천도서목록의 상업화를 보여준다.

<학교도서관저널>은 몇몇 대형 출판사의 자금을 모아 만든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상업적 잡지다. 그럼에도 이 잡지의 제목만 보면 마치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공적인 단체나 기구, 모임 등에서 만든 공적인 매체처럼 오해할 수 있다. 더구나 발행인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으로서 추천도서목록을 ‘구매력’의 관점에서 언급했던 인사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잡지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이를 해당 출판사들이 책 광고에 고스란히 다시 명기하는 데 있다. 여기서 해당 도서들의 좋고 나쁨은 별개의 문제이니 논외로 한다. 다만 추천도서목록을 만드는 상업적 잡지가 주주인 출판사들의 책을 우수도서로 추천하고 다시 출판사들이 이를 책 광고에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명백히 부도덕한 상업화다.

아무리 출판이 어렵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추천도서목록을 상업화한다면 출판에 대한 기본 신뢰를 잃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추천도서 상업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책과 저자, 출판사 등은 애꿎은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공정성과 신뢰성, 다양성이 전제되지 않은 추천도서 선정과 발표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추천도서목록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 허병두, ‘왜냐면’, <한겨레> 2012년 9월 14일)

## 5. 어느 추천위원의 한 달

잘 모르는 작은 출판사와  
잘 모르는 작가가 쓴  
숨은 진주가 있기를...

### 어느 달, 첫날

새 달, 새 날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달에 나온 신간을 골라야지. 우선 인터넷 서점을 뒤진다. 한 군데 정보로는 부족하다. 서너 곳의 인터넷 서점을 들러 지난달 10일에서 이번 달 10일까지 나온 모든 책들을 리스트로 만든다. 기대하던 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책도 나왔나 싶은 것도 있고, 이것도 동화인가 싶은 책도 있다. 그래도 꾸역꾸역 리스트를 만든다. 되도록 다 봐야지. 어쩌면 숨겨진 진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매달 리스트를 만들며 그런 기대를 한다. 신기하기도 하다. 1일에 리스트를 만드는데 발행일이 그달 20일쯤 되는 책도 있다. 미래에 나온 책? 출판사 관행이란다. 처음엔 신기하더니 이젠 그러려니 한다. 계속 리스트를 만들다보면 황당한 경험도 한다. 두 달 전쯤에 나온 책을 출판일만 바꿔 다시 신간으로 인터넷 서점에 들이키는 출판사들도 보인다. 좀 알파해 보인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 내가 담당하는 어린이 문학은 대략 우리 동화가 50여 권, 외국 동화도 그 정도, 옛이야기 서너 권, 동시집 10여 권, 경우에 따라 어린이 문학 이론서 몇 권 정도를 한 달에 나온 순수 신간으로 볼 수 있다.

### 어느 달, 첫 주 아무 날

첫날 만든 리스트를 들고 대형 서점엘 간다. 우선 서점 진열대의 '이 주의 신간' 진열대부터 살핀다. 많은 책들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나온 지 두 주만 지나도 신간 대열에서 제외된다. 이 '달' 의 신간이 아니라 이 '주' 의 신간이니까. 각 책의 위치 검색을 하고 다시 책을 찾는다. 그렇게 오래 다니다보니 각 출판사별 책꽂이 맨 오른쪽에 꽂힌 신간이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 모든 신간이 <학교도서관저널> 사무실로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간을 다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점에서 최대한 읽어내려 한다. 그러면서 기대를 한다.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출판사와 잘 모르는 작가가 쓴 숨은 진주가 있기를 말이다. 어떤 날은 오전 열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 어떤 날은 오후 일곱시부터 밤 열시까지, 또 어떤 날은 그보다 짧게. 다시 읽어봐야 하는 책 몇 권은 구매하고, 다시 읽지 않아도 되는 책들에 대한 짧은 평을 써 온다. 우리 잣대로는 절대 권할 리 없는 '배려동화'

‘자기계발동화’ 종류도 읽는다. 읽어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서점을 벗어나면서 드는 생각, 대형 서점은 왜 모두 지하에 있을까. 책을 오래 보고 있으면 머리가 빙빙 돈다.

### 어느 달, 둘째 주 금요일 여섯시 삼십분

추천위 일차 회의 날이다. 추천위원 대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이어서 매일 서점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학교도서관저널> 사무실에 와서 리스트에 담아 두었던 책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일차 회의에서는 추천위 단위별로 의논이 분분하다. 사무실에 온 책과 그동안 각자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검토했던 책을 두고 의견을 조율한다. 누군가 좋았다고 하는 책을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혼자 판단할 수 없었던 책에 대한 생각을 다른 추천위원과 나누기도 한다. 이 회의를 조금 떨어져 객관적 시선으로 본다. 이 구성원들 참 신기하다. 책을 추천하는 이 일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오산, 포항, 창원 등지에서도 모이는 걸까. 이 오밤중에. 누가 알아준다고, 정말.

### 어느 달, 셋째 주 수요일쯤

지난 회의에서 가져간 책과 의논한 사항에 따라 다시 검토한 책들을 모을 시간이다. 모두 이 일만을 주업으로 하라고 하면 얼씨구나 할 사람들이지만, 각자 직업들이 있다 보니 이날쯤 전화로 독촉 들어간다. 얼른 정하셔서 메일 주세요. 아님 문자 주세요. 부랴부랴 심사숙고. 그리고 답 메일, 답 문자. 한 사람이 총 취합. 한 달에 일곱 권을 정하는 일, 일곱 권 중에 적어도 우리 책 네 권을 넣고 싶다. 남들이 보면 별일 아닐 것 같은데 백 권이 넘게 나온 책 중에서 권하고 싶은 책 일곱 권이 없을 경우도 있다. 울고 싶다.

### 어느 달, 셋째 주 금요일 여섯시 삼십분

목록 확정 회의다. 각 분과에서 확정된 일곱 권의 책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다른 분야의 책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다. 분과들이 책을 발표할 때는 마치 내 새끼남들 앞에 세우는 부모 심정이 된다. 다른 분과에 특별히 좋은 책이 있으면 부러워하고 자기 분과 책이 별로면 발표하면서 우울해한다. 근래 어린이 문학은 자주 우울하다. ‘이 책 진짜 좋아요!’ 해본 지가 언젠지.

### 어느 달, 마지막 날

오늘 보내야 하는 ‘이달의 새 책’ 원고는 아직 마무리 중이다. 다른 사람들 원고도 아직 오지 않았다.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최면을 건다. 나는 제시간에 보낼 수 있

다... 보낼 수 있다.....

### 어느 달의 다음 달 오일쯤

‘땡동!’ 연 주간님의 조심스런 메일, 문자. ‘선생님, 원고를...’ 당황스럽고 송구스런 답. ‘네,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오늘 중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도돌이표.

다시 한 번 도마도!

(김혜원 학교도서관 문화살림. <학교도서관저널> 2011년 12월호)

| 지정 토론 |

---

## 출판, 독서, 도서관과 권장도서목록의 접점을 생각하며

---

여을환 | 어린이도서연구회 상임이사

## 출판, 독서, 도서관과 권장도서목록의 접점을 생각하며

두 분의 발표는 한편에서는 비관적인 현실을,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씨름해야 할 과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권장도서목록을 발행해온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과연 우리 사회 출판과 독서에 보탬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외람되게 몇 가지 여쭙고 또 제안하고자 합니다.

### 1. 권장도서의 영향력

권장도서의 존재가 독서가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저 역시 자주 회의하는 물음입니다만,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권장에 내재하는 선택과 배제가 독자의 책 선택을 제약하는가는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권장도서가 독자의 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중매체와 베스트셀러, 또 직간접으로 그 영향을 크게 받는 ‘입소문’ 이 독자의 선택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견주어 어린이책 분야는 각종 추천, 권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가정되고, 분명 과거 어느 시기에는 그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려는 출판계의 노력과 좋은 책을 알리고 독서환경을 개선하려는 저희 노력이 선순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나,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와 평대와 작가사인회, 온라인서점의 배너와 판촉이벤트, 홈쇼핑의 기획할인판매, 전집 영업사원의 구두홍보, 사교육업체의 교재 선정 등이 실제로 독자의 선택을 좌우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 년 넘게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이 권장도서목록의 힘을 보여주는 걸까 의아합니다. 2000년대에 새로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권장도서들이 얼마나 됩니까. 권장도서 가운데 팔리지 않는 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린이책의 ‘아주 느린 신진대사’ 로 보인 몇몇 스테디-베스트도서도 베스트도서로의 쓸림 현상의 일부고, 대다수 어린이책들이 독자 손에 쥐어져보지 못한 채 서점에서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짝 눈길을 끄는 힘은 있어도 길게 살아남을 만한 책은 갈수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독서의 쓸림은 권장의 영향력이 아니라 권장의 사회적 기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정기관이 늘었고 권장도서가 늘었지만, 좋은 책과 안 좋은 책의 경계가 사라지고, 팔리는 책과 안 팔리는 책의 경계가 출판유통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권장행위가 ‘나쁜 책’을 읽지 못하게 한다는 우려는 선정과 검열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책 선택을 권장도서가 전폭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제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선생님이 추천하는 ‘지루한’ 책에 맞서서 ‘재미있는’ 책을 골라 읽으며, 이는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와 도서관의 대출순위에서도 확인됩니다. 《마법천자문》과 《메이플스토리》를 권장하는 목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권장도서가 ‘나쁜 책’을 읽지 못하게 하여 독서가로 자라는 길을 막는다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2. 권장도서가 타율적 독서를 유도하는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독서를 경험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책을 안 읽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어른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목적은 성적과 대학진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행위가 왜곡되고 어린이들이 독서에서 소외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장도서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까요. 독자의 선택권이 억압되는 것은 권장도서가 아니라 타율적인 독서교육이 유행하기 때문이 아닌지요.

대표적인 독서사교육업체인 한우리독서클럽의 추천도서는 전국 지점에 가입해 활동하는 독서지도사들을 통해 교재로 쓰이고, 교재를 읽고 풀어오는 문제지와 독후토론활동도 학습적 맥락에서 구성됩니다. 이 외에도 대교눈높이창의독서, 웅진씽크빅 책읽기 등 독서사교육프로그램은 출판사에서 직접 납품을 받으므로, 선정도서는 곧바로 구매로 이어지고 어린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 됩니다. 또 학교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필독목록, 독서퀴즈/독서골든벨 행사 도서, 독후감대회와 독서경시대회용 선정도서 들은 ‘독서교육’이란 이름으로 강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권장도서가 비자발적인 책 선택을 강요한다고 느낍니다. 지현아(2011)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어린이 1195명을 설문조사(경기도내 학교도서관이 있는 13개 초등학교, 2개 어린이도서관에서 조사)하였는데, 권장도서목록이 없다면 다양한 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다수가 그렇다(49.0%), 매우 그렇다(42.4%)고 답하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권장도서목록을 접하는 통로는 학교 52.3%, 공공도서관 3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제공한 도서목록이 다른 기관의 권장도서목록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권장도서의 존재 자체가 타율적인 독서를 낳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평가는 발표자들이 말한 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선정기관의 성격, 발표매체형태, 분류의 적용, 종수, 선정기준과 선정자인적사항 및 선정과정의 제시 여부 등이 다뤄졌습니다. 지금은 드물지만 실제 독서 현장에서 권장도서가 적용되는 맥락도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권장도서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는 선정기관의 성격에서도 약간은 엿볼 수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엇갈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경우를 한 연구자는 교육계로 분류하여 ‘책따세’ 목록과 함께 다루고, 다른 한 연구자는 영리단체로 구분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권장도서목록을 선정도구로 활용할 때에는 목록을 발행하는 선정기관의 성격부터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 3.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장서 관리와 수서업무

독서의 사교육화가 심각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현실에서 도서관이 늘어나고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이 늘고 있으니 반가운 일입니다. 몇 년 사이에 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이 늘고 수서주기도 단축되어, 지금의 권장도서목록들이 선정도구로 활용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은 엄청난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도서관의 장서는 출간도서에 대한 선별작업을 거치므로 도서관은 이미 선정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조사한 도서관들의 예에서 매년 출간도서의 1/4에서 1/2에 이르는 도서가 공공도서관에 수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장서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지만 최근 흐름에 비추어 비중이 상당하리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린이장서를 전담하는 사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열람실 사서의 조언을 얻는다 해도 어린이장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장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마다 목록을 발행하고 다수 도서관에서 다른 기관이 발표한 권장도서목록을 발췌하여 목록을 만든다는 것이 의아하였습니다. 권장도서목록의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데, 발췌한 목록을 여러 도서관이 중복해서 내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작업이 수서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행정 업무의 단순 증대에 그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권장도서목록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도서관의 어린이장서 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갖추기 어렵다면, 여러 도서관 인력이 협력하여 권장도서목록을 점검, 평가하고 오늘처럼 그 결과를 발표하신다면 다른 선정기관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4. 어린이의 자료이용을 장려하는 도서관의 방법

도서관 장서는 이용자들의 활발한 이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교과와 연계하여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하는 연구가 늘어났는데, 주로 선정기관들의 권장도서목록을 일차정보원으로 삼아서 특정 학년, 특정 교과 수업에 활용할 도서와 그 활용 방안을 개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교육지도안을 마련해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피드백한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학교에 적용되는 방법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학교와 같이 독서활동 현장이기는 한데, 도서관은 고정된 일부 이용자보다는 불특정한 이용자들의 유동적인 목적에 부응하여야 하므로 학교와는 달리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어린이의 자료 이용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분류와 배가에 관심을 쏟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린이자료실은 영아 도서/유아 도서/초등어린이 도서 정도를 구분 배가하고, 신간을 따로 배가하는 정도로 압니다. 어린이자료는 문학(800)이 훨씬 많아서 장서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런 일입니다. 문제는 종수가 많고 어린이의 이용도가 높은 문학류를 어린이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분류하고 배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언어권별, 시리즈별 정도를 배가에 적용하는데 시리즈정보로 책을 찾는 부모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어린이 이용자의 책 선택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하위장르, 독서수준 등을 적용한 분류/배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 공공도서관에서 미스터리, 학교이야기, 동물이야기 같은 분류를 적용하고 별칭하는 것은 어린이 이용자가 자신의 독서성향을 이해하고 책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자료의 분류체계 연구에서 먼저 풀어야 할 숙제고, 도서관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주어진 조건에서나마 참고봉사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강사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 진행보다 직접 자료를 연구하고 이용자의 자료 이용을 돕는 활동을 늘려나가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어린이책 정보의 과제를 말하면서, 독서 현장에서 교사와 사서가 생산하는 책 정보가 늘어나서 저희 부담이 줄어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급증한 출판종수에 대응하는 것이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 안 되고, 선정도구가 다양하게 공존해야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바람을 밝히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 참고한 논문

- 강영주, 교과와 연계한 권장도서 목록 개발과 내용 분석-중학교 국어교과의3학년 2학기 문학 단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권재숙, 교과서와 연계된 권장도서목록 개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여을환,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을 통해 본 어린이책 정보의 현황과 과제”, 《도서관문화》 제48권 7호(2007.7)
- 이연옥,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권장도서목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2호, 2006.
- 지현아, 권장도서 목록이 어린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 종합 토론

---

## 2012 파주 북소리 '도서관의 날' 전문인 세미나 자료집

발행처 | 경기도대표도서관  
발행일 | 2012년 9월 19일  
주 소 | 파주시 교하동 숲속노을로 256  
전 화 | 031-8008-6706  
팩 스 | 031-8008-6710  
홈페이지 | [www.library.kr](http://www.library.kr)

비매품

※ 무단 전재 · 복제를 금합니다.